

한전공대 부지 28일 확정... 지자체 "승복"

광주시·전남도·정부·한전 협약 체결 ... 성공 설립 협력키로
2022년 개교 목표 달성 노력·대학 인프라 조성 지원 등 담겨

광주시·전남도·정부·한전이 '부지 승복, 성공 설립'을 담은 '한전공대 기본협약'에 서명했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는 부지 선정을 놓고 '통 큰 양보'를 거론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6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정부 서울청사 균형위 대회의실에서 '한전·광주시·전남도' 3자가 참여하는 '한전공대 성공적 설립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식'을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범정부 지원위원장을 맡은 송재호 균형위 위원장을 비롯해 이용섭 광주시장,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김영록 전남지사,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 김경갑 한전 사장 등 6명이 참석해 협약서

에서 서명했다. 협약식에 사도의회 의장까지 참여한 것은 앞으로 진행될 한전공대 입지 선정 절차와 결과에 대해 '절대 승복 하리'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전공대 조기 설립을 뒷받침할 기본협약서에는 ▲2022년 개교 목표 달성을 위한 한전의 노력 ▲입지선정 절차·결과에 대한 지자체의 수용 ▲향후 대학 인프라 조성 지원 등이 담겼다. 한전이 광주시와 전남도에 요청한 한전공대 부지 추천 마감일(8일)이 임박하면서, 입지선정 경쟁에 의한 지자체 간 갈등 해소와 대학 설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조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전공대 설립은 에너지 산업을 미래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광주·전남 상생과제로 채택돼 추진되고 있다.

현재 최적 입지 선정을 위해 한전 용역사인 'A.T.Kearney' (A.T커니) 측이 구성된 '입지선정 전문가위원회'가 평가기준을 마련했으며, 8일까지 광주시·전남도로 부터 각각 후보지 3곳씩 추천받는다. 이들 후보지에 대해 용역사 측이 구성된 심사위가 본격적으로 한전공대 입지 선정 평가 작업에 착수한다.

한전공대 설립 부지는 오는 28일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용역사는 대학 설립과 운영방안을 담은 '최종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전공대는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학생수 1000명, 교수 100명, 부지 120만㎡ 규모다. 이를 위해서는 늦

어도 2020년 전반기에는 착공해야 한다.

정부도 이에 맞춰 법적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특별법이 아닌 법률 개정 또는 시행령을 통해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는 정치 논리에 휘말리면 특별법 제정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한전공대 입지 선정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신경전도 날카로워지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엔 전남도가 양보해 한전은 나주에 있고, 한전공대는 광주에 있는 것이 상생의 길 아니냐는 염원과 소망이 많다"며 "통 큰 양보"를 언급하자,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에는) 연구중심 대학이 있지만 전남에는 없다. 한전공대와 같은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이 절실할 필요하다"고 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217억 짜리 '애물단지'

전남도, 서울 농산물센터 운영권 민간업자에 넘기기로
"전남산 식품 유통·판매 포기 '땅 장사' 골몰" 비난 여론

전남도가 서울 강남에 217억원을 들여 문을 연 '전남 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산 친환경식품 유통·판매를 포기한 채 '땅 장사'에만 골몰한다는 비난이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전남 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는 건축면적 1682㎡, 연면적 1만2627㎡, 지하 3층·지상 5층 규모로 총 사업비 217억원을 들여 지난 2012년 6월 개장했다. 전남도가 부지를 매입(103억원)하고, 민간사업자가 건축비(114억원)를 부담하는 민자유치(BTO)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건물을 지어 전남도에 기부채납하고, 오는 2030년까지 운영권을 갖도록 했다.

당초 전남도는 설립 취지대로 지하 1층에 마켓, 지상 1층에 전남산 농수축산물 판매장·홍보관, 2층 전남 공예품판매장, 3층·5층 사무실 등을 입점케 했다.

하지만 매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건물 연면적 1만2627㎡ 중 1층 일부인 400㎡만 전남산 판매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커피숍·오락실·미용실·의료기구 등이 들어섰다. 사실상 전남 유통센터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다. 이마저도 매출 부진을 타개하지 못하면서 준폐 위기에 몰렸다. 유통센터 매출액은 2012년 4억 2000만원, 2013년 1500만원, 2014년 1900만원, 2015년 1억6000만원, 2016년 8700만원, 2017년 1400만원 등 크게 저조하다. 서울 강남 매장의 매출로는 믿기 어려울 정도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전문가 현장 감담회, 사업자 면담,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친환경 농수축산물 판매만으로는 유통센터와 건물 상권을 활성화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건물 1층 유통센터 운영 여부를 민간사업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는 1층



서울 강남 개포동 '전남 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

전남산 판매장을 축소하거나 폐쇄해 다른 업종을 허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운영권자 입장에서는 유통센터 자리에 장사가 되는 업종을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장 감담회에 참석한 한 전남도 의원은 "서울 개포동인데 연 매출이 14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에 의구심을 가지고 현장을 둘러봤는데 재개발에 따른 여파가 큰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설립 취지를 잘 알지만 당장 상권을 회복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민간사업자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방안을 조언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주변 재개발이 끝나는 시점인 향후 5년간 운영 자율권을 부여한 뒤 상권이 살아나면 민간사업자에게서 운영권을 인수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유통센터의 매출부진 등으로 인해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건물을 살리기 위해 운영권자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면서 "2023년 재건축이 완료되면 유통센터 일대가 활성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때까지는 교육지책의 정책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풍암공원에 태극기 문양 6일 광주시 서구 풍암생활체육공원에 조성된 대형 태극기 문양 주변을 시민들이 산책하고 있다. 3·1운동 100주년,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맞아 올해는 '한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두환, 이번엔 독감 핑계... 5·18 광주 재판 "불출석"

광주지법 "재판 예정대로 진행"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7일로 예정된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독감 등 건강을 이유로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6면>
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의 변호인은 지난 4일 피고인이 신경쇠약으로 법정

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일변경(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씨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6일 전화통화에서 "(전 전 대통령) 독감으로 열이 39도까지 올라 외출이 불가능하다. 광주까지 재판받으러 갈 수 없는 상태"

라면서 "고령인데다 열이 심해 광주까지 갈 수 없을 뿐 재판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니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7일 법정 출석해 독감 진단서를 제출하고 다시 사정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두 번째 공판일로, 7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열린다.

광주지법은 일단 법원 경계를 강화하고, 전씨의 재판 방청권을 사전 배부하는 등 출석에 대비하고 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재판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전씨의) 출석을 전제로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펠렌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은퇴 후 생을 말하다
- 정년 앞 뱀 배비부머 ▶18면
오늘밤 황의조 발을 주목하라
- 아시안컵 필리핀과 첫 대결 ▶20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일보 뉴스
NAVER
포스트에서 보세요

SWITCH TO EQ

Introducing GLC 350 e 4MATIC

#switchtoEQ

GLC 350 e 4MATIC 출시!
탁월한 퍼포먼스와 놀라운 연비를
동시에 실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Mobilit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에서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소동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동대로 603(동남동) 수암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동대로 520(수암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C 350 e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2,120kg, 자중: 7t), 복합회합모드 연비 (CS연비): 9.7km/ℓ (도심연비: 9.1km/ℓ, 고속도로연비: 10.6km/ℓ), 복합전기모드 연비 (CD연비): 2.3km/kWh (도심연비: 2.0km/kWh, 고속도로연비: 2.6km/kWh), 복합CO₂ 배출량: 92g/km, 1회 충전 주행거리: 15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를 이미지는 국내 시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